

# 부끄러운 책대출 문화

## ■광주 대학·공공도서관 가 보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전남대생 김모(27·경영학과 4년)씨는 세법·회계학·원가관리 등 수험서는 꼭 새 책을 산다. 도서관에 있는 수험서는 책에 형광펜이나 볼펜으로 낙서가 돼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책이 1권당 3~4만원을 훌쩍 넘지만 공부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 김씨는 "유명한 책은 사람들이 많이 본 탓인지 다른 책들에 비해 훼손 정도가 심하다"고 말했다.

주부 장모(32·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줄 책을 빌리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도서관을 찾는다. 하지만 책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예 표지가 없어 빌리지 못한 책이 많다. 장씨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조금씩만 주지만 책을 깨끗하게 오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광주시내 대학과 공공도서관의 '대출 문화' 수준이 낮다. '남의 책'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3곳(무등·사직·산수)에서 훼손된 내다버린 책은 총 871권.

## 찢기고 낙서 범벅에 미반납도 일수

## 도서관 3곳 2년새 1,500여권 폐기

## 아동도서관보다 일반도서관 훼손 심각

이중 어른들이 보는 일반도서관은 479권으로 아동도서관(249권)보다 1.92배 많았다. 올해도 10월 말 현재 총 695권이 폐기됐으며, 이 가운데 ▲일반도서관 383권 ▲아동도서관 199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서관 직원들은 스테이플러(stapler)나 본드로 훼손된 부분을 붙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필요한 부분을 찢어가거나 책에 형광펜과 볼펜 등으로 심하게 낙서를 한 일반도서관들은 손을 쓸 수 없어 버릴 수밖에 없다.

대학 도서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남대는 지난해 대출한 32만3천830권의 책 중 289권(0.09%)이 반납되지 않거나 심하게 훼손됐다. 같은 기간 조선대는 22만 631권 가운데 294권(0.13%)이 훼손도서관으로 분류됐다. 반납하지 않은 책까지 포함하면 1천여 권이 넘는다.

무등도서관 서우정(30) 사서는 "대출자 중에는 책에 낙서를 하거나 음료수를 엔질러 책을 못 쓰게 하는 사람이 많다"며 "빌리는 책도 자기 책처럼 생각하고 조심한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돌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무등도서관 직원들이 스테이플러(stapler)·본드·유리 테이프 등으로 훼손된 책을 고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 낙엽은 뒹굴고 10월 31일

고기암의 영향을 받은 뒤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주	차차 흐려짐	8~22℃
전주	차차 흐려짐	9~21℃
대구	차차 흐려짐	15~21℃
부산	차차 흐려짐	9~21℃
서울	차차 흐려짐	9~21℃
인천	차차 흐려짐	6~23℃
대전	차차 흐려짐	5~22℃
충주	차차 흐려짐	5~23℃
청주	차차 흐려짐	8~22℃
포항	차차 흐려짐	5~23℃
울릉도	차차 흐려짐	6~21℃
독도	차차 흐려짐	7~23℃
제주	차차 흐려짐	4~22℃
경남	차차 흐려짐	6~21℃
경북	차차 흐려짐	4~22℃
충남	차차 흐려짐	6~21℃
충북	차차 흐려짐	4~22℃
강원	차차 흐려짐	6~21℃
제주	차차 흐려짐	4~22℃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8:41 썰물 < 02:26  
여수 밀물 < 04:21 썰물 < 10:12

▲해돋이 06:52 ▲해질 17:40 ▲달돋이 14:33 ▲달질 00:21

날씨	11/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최저/최고	9/20	8/17	7/17	9/16	8/15	4/12

# 을 광주김치축제는 '사랑 나눔'

## 11월16일 개막...불우이웃과 김치 담그기 등 다채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광주김치대축제'가 김치판매·체험학습·불우이웃돕기 등 3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치러진다.

광주시는 30일 "11월16일부터 5일간 광주염주체육관 일원에서 제13회 광주김치대축제를 개최한다"며 "이번 축제에서는 불우이웃들과 김치를 나누는 '사랑나눔 김치담그기'와 김치 담그기 체험을 통한 김치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사랑과 나눔'을 슬로건으로 공식·전시·공연·체험 등 6개 분야에 걸쳐 40개 프로그램을 진행, 남도 김치의 종가(宗家) 광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 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삼성전자·국민은행·만도

위니아·도로공사·KT&G 등 국내 대기업들이 스폰서로 참가하는 '사랑나눔 김치축제'를 축제기간 동안 매일 1회씩 열어서는 노인·소년소녀가장·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다.

시는 또 '전통김치 담그기 경연'·'김치음용 요리 경연'·'남도 목은지 요리 경연'·'유치원장 퓨전요리 경연'·'외국인 머느리 김치담그기' 등 다채로운 경연대회를 열어 남도 김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김치는 과학이다'·'나눔 김치박사'·'김치스쿨' 등의 코너를 운영해 김치 담그기에 이용되는 과학원리, 남도음식명가의 김치담그는 법 등을 최고 수준의 체험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이와 함께 저렴한 비용으로 축제현장에서 재료를 사서 직접 김장을 담아가는 '청정김치 직거래장터'를 마련하고, 20여 가지 남도 김치와 두부 보쌈 등 김치음용요리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김치뷔페'도 개설한다. 이곳에서는 지역 생산업체들이 새로 개발한 명품 배추 목은지 '고향미'도 선보인다.

이외 '2006인본 김치김밥만들기', 김치 콘서트, 품바한마당, 마당극, 금강산 예술단 공연, 어린이 인형극, B-boy공연, 해외민속공연 등 각종 관광 이벤트도 준비했다.

시는 같은 기간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06 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하는 관람객 등을 위해 셔틀버스와 시티투어 버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광주 초등·유치원 교사 248명 내달 19일 공채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1월19일 임용시험을 실시, 광주지역 초등학교와 공립 유치원 등에서 근무할 교사 248명을 신규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공립의 경우 유치원 교사 15명, 초등학교 교사 150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20명, 특수학교 치료교과 교사 5명, 영양교사 56명 등 246명이고, 사립은 특수학교(광주제광학교) 2명이다.

또 장애인복지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립학교 모집인원의 5%인 13

명이 장애인으로 채워진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30일부터 오는 11월3일까지 시 교육청 1층 민원봉사실 앞에서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www.gen.go.kr) 또는 시교육청 초등교육과(062-380-4315~7)로 문의하면 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가을=독서의 계절' 옛말

## 책 판매 여름보다 20~30% 줄어

"얼마나 책을 안 읽으면 '독서의 계절'이니 '책의 날'을 만들었겠어요. 오히려 책 좀 봐달라고 만든 게 아닐까 싶네요."

'가을=독서의 계절'이란 등식은 이제 옛말.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한' 가을엔 야외로 놀러다니는 계절이 됐다.

이런 변화는 도서 판매량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주 총장서림의 경우 지난 8월엔 7만7천여 권이 팔렸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9월 7만2천 권 ▲10월 5만5천 권으로 판매량이 격감했다.

삼복서점도 ▲9월 3만 권 ▲10월 2만5천 권으로 줄었다. 영풍문고 광주지점도 3만5천 권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에는 3만1천 권으로 떨어졌다. 대형 서점 대부분의 판매량이 20~30%가 감소한 것이다.

서점업계는 지역축제와 단풍 구경 등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고, 각종 문화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독서 인구가 준 것으로 분석한다. 박영성(49) 영풍문고 광주지점장은 "가을은 덥지않고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 책 읽기에 그만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책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선암사 '도선국사 초상' 등 12건 보물 지정 예고

순천 선암사의 도선국사 초상과 광주 자운사 목조 아미타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30일 도선국사 초상, 목조 아미타 불좌상과 그 복장유물(復藏遺物·불상을 조성할 때 불상의 몸 안에 넣는 물건)을 비롯 흥선대원군 이하응 초상화 등 12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선암사 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인 도선국사 진영(眞影)은 원본이 번색돼 지난 1805년 화사(畫師) 도일이 다시 그린 것으로, 불교 미술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다.

광주 자운사 목조 아미타불좌상은



<도선국사 초상>

<아미타불좌상>

지난 1888년 불상에 다시 금칠을 다시 했다는 기록이 발견됨으로써 현존 국내 목조불상 중 가장 오랜 것 중 하나로 밝혀진 유물이다. 대수구다라니경과 주금강경(注金剛經) 등 복장유물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인터넷서 함정 타다

## 해군, 체험관 개설

해군은 홈페이지(www.navy.mil.kr)에 한국어 구축함(KDX-II)·호위함·잠수함 등의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가상함정 체험관'을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영상기법을 이용한 이 체험관은 보

고 싶은 부분을 확대·축소, 상하좌우 360도 전방위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 마치 함정을 타고 있는 듯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또 적의 공격 양상에 따라 함포와 대공포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소나(Sonar·수중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적 잠수함을 찾아내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SONY 광주전시장 새만장 기념 사은행사

**BRAVIA 2년 무상**

10월 주말인성 초특기 sale

- ▶ 행사 1 TV·캠코더·디지털카메라 10% 할인판매
- ▶ 행사 2 디지털카메라 구매고객께 메모리+키링증정

## 중국어 3개월이면 된다!!

매월초 개강

- ▶ 1월 10일 개강
- ▶ 2월 10일 개강
- ▶ 3월 10일 개강
- ▶ 4월 10일 개강
- ▶ 5월 10일 개강
- ▶ 6월 10일 개강
- ▶ 7월 10일 개강
- ▶ 8월 10일 개강
- ▶ 9월 10일 개강
- ▶ 10월 10일 개강
- ▶ 11월 10일 개강
- ▶ 12월 10일 개강

중국계 외국인학교 **리틀자이나 中国語 学院**

233-9582